

윤리와 사상

1. ④	2. ⑤	3. ①	4. ④	5. ②
6. ②	7. ①	8. ④	9. ①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②
16. ②	17. ③	18. ④	19. ⑤	20. ③

1.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④ 장자는 모든 세속적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① 타고난 도덕성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이다. ② 성리학, ③ 불교의 주장이다. ⑤ 성인이 제정한 사회 규범을 익히라는 것은 순자의 주장이다.
2. 갑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심즉리(心即理), 주희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다. ㄱ. 왕수인은 마음 속의 양지를 사물에 실현해야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고 보았으며, 주희는 각각의 사물은 이치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ㄴ. 왕수인, 주희 모두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ㄷ.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왕수인, 주희의 공통된 입장에 해당한다.
3. 그림의 강연자는 헤택론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무를 정당화한 흄이다. ① 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해 국민의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흄은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이 중단되면 복종의 책임도 중단된다고 보았다.
4. 제시문은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ㄴ. 에피쿠로스는 무한히 큰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함'을 진정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는 헛된 갈망에서 오는 욕구를 제한해야 하지만,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에피쿠로스가 모든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ㄹ.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감각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5. 갑은 지눌, 을은 의천이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교관겸수(教觀兼修)를 주장하였다. ② 지눌은 경전에 대한 탐구보다 불성의 깨침이 먼저라고 주장하였다. ① 지눌은 깨달음에 이르는 선 수행의 한 부분으로 교학을 받아들인다. ③, ④ 의천의 교관겸수(教觀兼修), 내외겸전(內外兼全)에 대한 설명이다. ⑤ 의천, 지눌 모두 부처의 가르침은 통한다고 보았다.
6. 갑은 이이, 을은 정약용이다. 이이는 사단이 칠정에 포함되는 것처럼 본연의 성은 기질의 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잘못된 기질을 바로잡아야 본연의 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정약용은 기질의 성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고, 오직 인간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도덕적 성향이 있다고 본다. ㄱ. 이이는 기질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불완전함이 생긴다고 보고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한다. ㄷ. 이이는 이는 모든 것에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정약용은 사람만이 도의(道義)의 성(性)이 있지만, 기질의 성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 ㄴ. 정약용에 의하면 사람만이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며, 동물은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ㄹ. 이이와 정약용 모두 사단(四端)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다.

7. 제시문은 이항의 주장이다. 이항은 사단과 칠정은 각각 이발(理發)과 기발(氣發)에 기인한다고 보아 이기호발(理氣互發)을 주장하였다. ① 이이는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연원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② 이의 생동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항이다. ③ 이항은 이와 기의 엄격한 구분을 강조하였다. ④ 이이에 의하면 사단은 칠정 중의 선한 감정일 뿐이다. ⑤ 이항만이 사단이 이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8.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④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 정의의 덕을 갖춘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았다. 지혜의 덕은 이성적인 부분이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에 대해 아는 것이다. ① 플라톤은 덕을 갖추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덕복(德福)일치의 입장을 지닌다. ② 플라톤은 행복한 삶에 대한 궁극적 근원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③ 플라톤에 의하면 절제는 영혼의 모든 부분에 요구되는 덕이다. ⑤ 플라톤은 욕구적인 부분의 완전한 제거를 주장하지 않는다.
9. 갑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무위 정치(無爲政治)론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예(禮)라는 규범을 배워야 욕구를 다스림으로써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예치(禮治)를 주장하였다. ㄱ, ㄷ. 노자와 순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 성정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은 맹자이다. ㄴ. 노자는 부정, 순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는 인위가 오히려 도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ㄹ. 순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0. ㄱ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듀이의 주장이다. ㄴ의 가로 낱말 (A)는 '지행(知行)', (B)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지식(知識)'이다. ③ 듀이에 의하면 지식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① 듀이의 '성장'에 대한 입장이다. ④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입장이다. ⑤ 듀이는 지식을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11.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서양 사상가는 사르트르이다. ①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②, ③ 사르트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실현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이다. ④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의 입장이다. ⑤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12.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 절도와 같이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에는 중용이 없다고 보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상태를 말한다. ㄱ, ㄴ.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인 선의 이데아를 부정하였고, 실천적 지혜를 지성적 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3.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ㄴ. 칸트는 의무와 행복이 상충할 때 행복을 고려하지 말고 의무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판단 근거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ㄱ. 칸트는 개인적인 준칙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14. 갑은 스피노자, 을은 아퀴나스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 만물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지만, 아퀴나스는 신을 초월적 존재로 보았다(㉠, ㉡, ㉢). 스피노자와 달리 아퀴나스는 인격신을 강조하면서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신과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 아퀴나스와 달리 스피노자는 신을 세계 자체이자 자연으로 보면서 인간을 신 또는 자연의 유한한 양태라고 보았다(㉧, ㉨). 따라서 정답은 ㉥이다.
15. 갑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노직, 을은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왈처이다. ㄱ. 노직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왈처 역시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왈처와 달리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보았다. ㄴ. 노직은 사회 복지를 명분으로 개인의 근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ㄹ. 왈처는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다고 보았다.
 16. ㄱ는 마르크스주의, ㄴ는 민주 사회주의이다. ②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붕괴하고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① 마르크스주의는 공산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과 계급 및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민주 사회주의는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경제적 목적으로 천명하였다. ④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기본으로 일정 부분의 사적 소유도 인정한다. ⑤ 마르크스주의, 민주 사회주의 모두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17. 갑은 공자, 을은 맹자이다. ③ 맹자는 왕도(王道)의 시작은 항산(恒産)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공자에 의하면 어진 정치의 지도자의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② 도가에서 백성의 무욕을 주장하였다. ④ 맹자가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⑤ 순자의 주장이다.
 18. 갑은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이다. ④ 하이에크는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과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① 케인스는 불황, 실업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③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⑤ 케인스, 하이에크 모두 사유 재산제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19. ㄱ는 증산교, ㄴ는 동학의 주장이다. 증산교는 강일순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종교로서 모든 재난은 원한을 풀는 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원한을 풀고 서로 함께 살아가라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을 강조하였다. 동학은 최계우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종교로서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주장하며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하였다. ⑤ 증산교, 동학 모두 내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 사회를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20. 갑은 흄, 을은 벤담이다. ③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쾌락의 양적인 차이를 중시하였다. ①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도덕성의 기초로 보았다. ② 흄에 의하면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으며 이성은 다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도구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④ 벤담은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라고 보았다. ⑤ 흄, 벤담 모두 유용성을 중시하였다.